논어 15편 위령공 23장 · 원문·풀이

子貢問曰：「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？」子曰：「其恕乎！己所不欲，勿施於人。」

독음 · 자공문왈 유일언이가이종신행지자호 자왈 기서호 기소불욕 물시어인

쉬운 풀이(요약) · 평생 실천할 한마디는 서다.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問 물을 문 문 / 曰 가로 왈

有 있을 유 / 一 한 일 일 / 言 말씀 언 언 / 而 말이을 이

可 옳을 가 가 / 以 써 이 이 / 終 끝낼 종 종 / 身 몸 신 신

行 다닐 행 행 / 之 갈 지 / 者 놈 자 / 乎 어조사 호

其 그 기 / 恕 용서할 서 서 / 己 자기 기 기 / 所 바 소 소

不 아닐 불 / 欲 욕심낼 욕 욕 / 勿 말 물 물 / 施 베풀 시 시

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人 사람 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